

주요 식량작물 작부체계별 수익성 · 생산성 비교*

석다숨, 박지인, 정재원, 오상현, 소남호*

*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

e-mail: dsseok@korea.kr, zin517@korea.kr, jwjeong1015@korea.kr, ohsh@korea.kr,
soxxx007@korea.kr

Comparative Analysis of Profitability and Productivity of Grain Cropping System in Korea

Da-Som Seok, Ji-In Park, Jae-Won Jeong, Sang-Heon Oh, Nam-Ho So*

*Dept. of Farm & Agribusiness Management Division, RDA

요 약

본 연구는 기후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주요 식량작물의 수급 불안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부체계별 수익성 및 생산성을 비교·분석하고, ‘밀산업 육성법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배면적 확대와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.

이를 위해서,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7개 생산단지 내 각 3개 우수경영체를 임의추출하고, 농산물 소득조사표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통해 밀·콩 작부체계 수익성 및 생산성을 분석하고, 경쟁관계에 있는 작부체계(밀·벼, 보리·벼, 콩단작, 벼단작)와 비교하였다.

실증분석 결과, 단위면적당(10a) 소득은 밀·콩이 1,183천원으로 가장 높았고, 논콩 1,020천원, 보리·벼 926천원, 밀·벼 894천원, 벼 731천원으로 나타났다. 또한 작부체계별 노동생산성은 논콩이 170천원/시간으로 가장 높았고, 밀·콩 120천원/시간, 벼 104천원/시간, 보리·벼 90천원/시간, 밀·벼 생산성이 85천원/시간으로 추정되었다.

밀·콩 작부체계는 수익성이 가장 높고, 노동생산성이 콩단작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. 이는 콩을 중심으로 수익성과 생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밀 재배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용도별 고품질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·보급 확대, 밀 중심 이모작 재배기술 확대가 필요하다. 또한 밀 재배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높은 수입밀과 차별화된 전략, 즉 기능성 특화 및 용도별 블렌딩 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소비기반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. 더욱이 밀 자급률이 0.8%(2020년 기준)에 불과한 상태에서 1인당 밀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은 소비자 맞춤형 밀 중심 생산단지의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큼을 시사한다. 결과적으로 수익성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·콩 작부체계 생산단지 확대를 통해 재배면적 및 자급률 향상으로 식량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.

*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(과제번호: PJ01576502)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.